

## 쏘울 생산 크리스마스 특명

### 연내 10만대 해외 수출 닛산 '큐브' 제치고 질주

광주가 만든 기아차 쏘울이 연말까지 10만대 해외 수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 박스카 시장 1위를 굳히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문이 밀려오고 있어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에 따라 성탄절에도 쉬지 않고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2월 기아차에 따르면 쏘울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에서만 모두 8만7천421대가 팔려나갔다. 수출 계약 이후 출고를 기다리는 쏘올도 2만대가 넘는다. 특히 지난 한 달간 1만418대를 해외로 수출했다. 전달 7천858대에 비해 2천560대(32.6%) 늘어난 것이다.

개성 있는 디자인과 성능으로 해외 소비자를 사로잡은 덕분이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주에서 동종 박스카인 닛산 '큐브', 도요타 '사이언xB'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2만9천대를 팔아 올해 2개월 앞서 미국시장에 출시된 '사이언xB'(2만4천대), 큐브(1만8천대)를 간단히 제쳤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앞으로 한 달간 1만2천500여대만 수출하면 연간 10만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특근을 한다. 특근은 모두 10차례다. 정규근로 8시간에 2시간의 잔업이 추가된 주야 '10+10'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5일, 12일, 19일, 26일 등 토요일 특근 8회와 크리스마스의 25일 주야 2회 특근이 노사합의로 계획돼 있다. 기아차 노사는 쏘올 증산과 임단협 등 현안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신차 출시도 준비할 태세다.

기아차 광주1공장에서 출고에 앞서 최종 점검 중인 쏘올. /최현배기자 choi@

## 고속철 광주~목포 2012년 착공

무안공항 경유 땀 7천억원 추가 소요 예상

내일 오송~광주 전 노선 동시착공 기공식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노선이 오는 2012년 착공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병호 고속철도사업단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노선은 내년께 무안공항 경유여부에 대한 노선 재검토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 등을 걸쳐 오는 2012년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광주~목포 노선은 현재 나주 금성산 통과 여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나를 놓고 논란이 있다"며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는 경제성과 수익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사업비가 대략 7천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 말했다.

김 단장은 "호남고속철이 개통되면 공항이 아닌 KTX 중심으로 교통 환경이 변하게 될 것이다"며 "대구공항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국내선이 사라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간 전 노선(19개 공사구간·182km)의 동시 착공을 기념하는 기공식이 4일 광주 송정역에 열린다.

김 단장은 광주 송정역에서 열리는 호남고속철 기공식과 관련, "이날 행사는 호남고속철 19개 전구간 동시착공을 기념하는 것이다"며 "현재 착공된 15개 구간에 이어 연말까지 4개 구간을 착공하면 오는 2014년 말 완

공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 오송~광주, 광주~목포노선의 완공시기를 앞당기려면 사업비 확충은 물론 소요자금을

적기투입 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기술적으로 총사업비 11조 2천720억원 범위에서 공기를 더 이상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단장은 "오송~광주 노선의 경우 애초 2015년 완공하려 했던 것을 1년 앞당긴 것"이라며 "완공시기를 앞당기려면 사업비가 더 투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남고속철 총노선 길이는 231km에 달하며 오는 2017년까지 오송~목포 전 구간이 완공될 경우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목포는 1시간 46분, 서울~광주간은 1시간42분이 될 전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이대통령 "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

정총리 "세종시 수정해도 혁신도시 약속 지킬 것"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경북도청에서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며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 등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관련) 지역에서는 다소 걱정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는 데 강

조하게 된다"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니 지역에서도 신념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나는 원론적으로 어디 가기로 했던 것을 다른데 보내는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것은 창의적으로 해야 하고

계획된 것은 완벽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세종시 문제와 혁신도시 문제는 다르다"며 "혁신도시 시는 세종시 수정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추진할 것이다.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주노동자 탐사 보도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광주일보 취재팀 엠네스티 언론상 수상 ▶2면

알림

즐거운 영어 내일 나옵니다



광주일보 만화영어신문 매주 금요일 무료배달

'즐거운 漢字'에 이은 독자서비스 기대 하세요

光州日報社

